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있었다 하락장 물려 집 잔금 못 치를 판”

코스피 4800 ‘패닉’

#.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12월 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1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서다. 최씨는 “지난 6월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돈을 뺄 상황이 아니라서, 급하게 은행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4800선까지 밀려나는 것을 보니 밤잠이 오질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이달 개인 삼전닉스 3.2조 매수, 손실 커
美 반도체 3배 추종 ETF ‘속슬’ 32%↓

나스닥 5.28% 하락, 앤트로픽 8.5% ‘뚝’
엔비디아 14% 떨어져 52주 신저가 기록

전문가들, 반도체 업황전망 크게 엇갈려
이번주, 주가 향방 가르는 ‘빅위크’ 예상

지난 20일 한국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앤트로픽의 상장에 대한 기대보다 인공지능(AI)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약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삼성전자는 7.01% 내린 18만3100원, SK하이닉스는 5.92% 하락한 111만300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개미)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해 올해 4월 수익률이 50%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며 “언제까지 하락장이 이어질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주식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제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 있었다” “전문가들 말 믿고 버티기 하다 연봉 날아갈 판” 등 망연자실한 반응이 잇따랐다.

코스피가 4800선까지 밀리자 전문가들조차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실적을 고려하면 낙폭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미국 긴축 통화정책,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반등 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삼전닉스 폭락에 개미들 패닉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모(26)씨는 “신혼 전셋집 마련에 보태려고 취업 직후부터 모은 6000만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22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출은 막혀 있고 주식은 떨어지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4번째로 수출액 1조 달러 달성했다는데 내 주머니는 왜 이렇게 가볍냐”는 하소연도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2일~20일)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3612억원, SK하이닉스를 8077억원 순매수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각각 첫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개미들 손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도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ETF ‘속슬(SOXL)’을 지난해부터 보유한 이모(32)씨는 “이미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 더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꾸준한 상승가도를 예상했던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속슬은 31.83% 폭락했다. 서학개미들 투자 비중이 높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8% 하락했다. 상장 이틀째인 앤트로픽은 전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며 8.50% 내린 88.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공모가인 83달러 부근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14.01%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4위로 주저앉았다. 지난 10월 6일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48%가량 내렸다. 중국 스파이가 연루된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미국산 AI 칩이 사용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제한하는 등 규제에 착수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영향이다.

◆“가격 상승 지속” vs “내년 재고 조정”…美 물가·금리 변수

반도체 업황 전망은 크게 갈린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글로벌 D램 수요가 올해보다 25% 증가하는 반면 공급 증가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D램 평균판매가격이 계약가격 기준 올해보다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 달간 D램과 낸드의 현물가격은 하락했지만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계약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두 가격의 괴리가 20% 이상으로 벌어졌다며 반도체주에 대한 비관론이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 연구원은 올해 D램 공급업체의 출하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웃돌면서 유통망에 재고가 쌓이고, 이것이 내년 2~3분기 재고 조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과 AI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이런 전망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낮추고 목표주가를 1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내렸다.

두 전망을 가를 것은 메모리 계약가격과 고객사의 실제 발주량이다. 현물가격 하락에도 계약가격이 오르고 AI 서버 수요가 유지된다면 주가 하락이 실적에 비해 지나쳤다는 평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재고 증가가 계약가격 인하와 이익 전망치 하향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조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주가 주가 향방을 가르는 ‘빅위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델 실적을 통해 AI 서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으면 미국의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결정과 함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금통위의 메시지가 줄어든 증시 자금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총 1조 상장종목 연초대비 26개 줄어

거래소, 올해 초 237개→211개 11% 증발
시가총액도 10개월만에 4000조 아래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이 1월 초보다 26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1조원 이상인 종목은 211개로 집계됐다.

같은 날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16일(4,840.74)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코스피 내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237개였지만, 현재는 211개로 26개(11.0%)감소한 수준이다. 코스피가 4800선으로 돌아왔지만 시총 1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종목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국내 증시 전체(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산)의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지난 4월 29일 역대 최대인 405개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7월에는 300개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말 301개로 소폭 반등했지만, 최근 증시 급락에 다시 287개로 줄었다.

시총 10조원 이상인 ‘대형’ 종목은 지난 20일 56개로, 지난 5월 8일 역대 최대인 83개보다 27개(32.5%)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시가총액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3991조원으로,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40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7450조원)와 비교하면 3458조원(46%),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도 부진했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지수가 비슷했던 지난 1월 16일 대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723개로, 총 932개 종목 중 78%에 달했다. 지수는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7.24%, 48.60% 상승했다. 연초에는 코스피 5,000선 돌파 기대감에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종목이 상승분을 반도체 ‘투톱’보다 더 빨리 반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